

11 권위 앞에 당당한 진리의 선포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 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행 26 : 29).

신앙고백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 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새 450장, 통 376장)

기 도 담당자

오늘의말씀 사도행전 26 : 24~29

성경말씀 경청하기 말씀 해석을 통해 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체포된 이후 여러 재판관과 총독 앞에서 복음에 관하여 변론을 하였습니 다. 그리고 이제 총독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된 배경과 유대인의 고소에 대한 최종 변론을 이어 갑니다. 총독 베스 도는 바울의 학문이 그를 미치게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의 눈에는 바울이 학문에 미쳐 헛소리를 지껄이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바울의 눈에 비친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은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바울 은 침착하고도 공손한 태도로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1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26절).

2 세상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29절).



성찰하기 이야기를 읽고 질문을 통해 깨달은 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방탕한 생활에서 회심 뒤 ‘하루에 10명씩 전도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프랭크 제너는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호주 시드니, 조지라는 거리에서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가 한 말은 딱 이 세 마디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조롱에도 낙심하지 않고 전도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자신의 전도 활동에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교회의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려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나뉘도 될까요?” 목사님은 3분 안에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친척을 만나러 시드니를 방문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 이 목사님은 LA와 호주에서 초청 설교를 하던 중 이와 똑같은 간증을 여러 번 듣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조지 거리의 노인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이야기를 몇 차례 더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프랭크 제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프랭크 제너는 전도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담대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단하기 실천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담대하게 내가 믿는 주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천국시민이라고 삶 속에서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봉헌찬송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새 516장, 통 265장)

오늘의 기도와 주기도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 후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